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그 세 번째 보따리

담배자판기의 운명도 천태만상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자판기 역시 큰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우선 희소식부터 전하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인인증자판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이나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에는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담배자판기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 금지를 담은 WHO 담배규제 협약도 채택이 되어 담배자판기는 이제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난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담배규제기본 협약은 이후 40개국의 서명·비준이 완료 됨과 동시에 발효가 되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자판기 관련 내용이외에도 5년 내에 모든 담배광고와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담배의 경고 형식과 포장 불법 거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으로 담배규제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금연운동이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다. 건물내 흡연구역을 아예 없애는 경우도 다

반사이고 애꿎은 담배자판기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흡연은 물론 담배자판기도 안돼!' 삼성이 최근 제조업 계열사 전사업장에 비치돼 있던 담배자판기를 모두 철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외 흡연장 이용마저 하루 두 차례로 제한하는 등 금연 운동을 대폭 강화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5월 전계열사 사업장내 전면 금연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5월초 삼성전자, 삼성SDI 등 제조업 전계열사 사업장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했다고 밝혔다. 담배자판기 철거는 최근 이견희 회장이 "금연 사업장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철거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기흥, 천안, 화성, 온양 등 4개 반도체 사업장 실내외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주부터 구미, 수원 등 사업장에서는 실외 흡연장 이용도 하루 2차례(오전 10시~10시20분, 오후 3시~3시20분)로 제한했다.

일부 흡연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리 금연 사업장이라고 해도 흡연장 이용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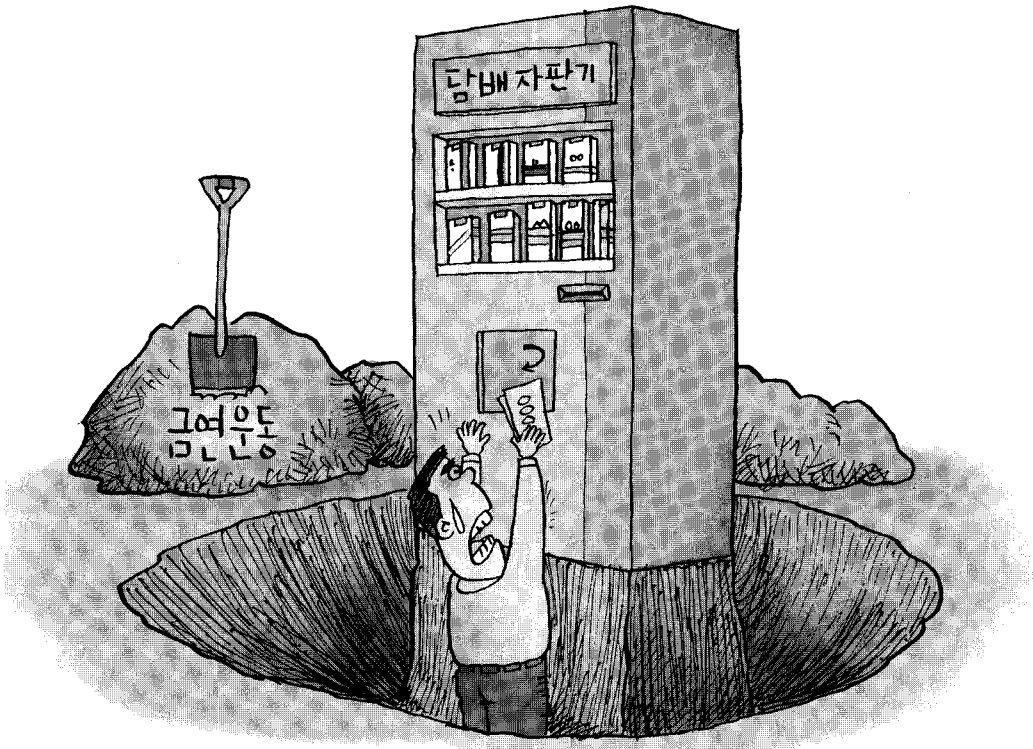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 전면금연을 실시해 놓



고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파는 것은 모순”이라며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사업장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편드를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펼쳐온 삼성 그룹은 최근 한 조사에서 직원의 51.8%가 금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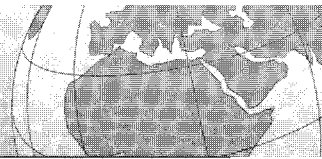
국내외 보도진이 상주해 있는 춘추관에서는 담배 수요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매점이 없다. 대신 2층에 담배자판기가 비치돼 있다. 담배자판기는 비서실 매점 직원이 따로 관리한다. 이 직원은 그러나 비서동 매점에 상주한다. 신체장애가 있어 비서동과 춘추관 사이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것으로 기록됐다.

서글픈 담배자판기의 운명. 그러나 담배자판기가 무소불위의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곳도 있다. 그곳은 바로 청와대내 보도실이 있는 춘추관이다.

그렇다면 담배자판기는 어떻게 관리할까. 그는 동생뻘 되는 지인에게 키를 맡겨 담배를 채워 넣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오후 춘추관 담배자판기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 먹통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메모



가 붙어 있었다. ‘자판기를 관리하는 동생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내일까지 참아주세요.’ 요즘 인터넷 유행어에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라는 게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없어도 정상 가동된다. 그러나 담배자판기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흡연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담당직원이 직업정신에 투철한 것은 다행이었다. 이 직원은 식당직원들에게 부탁해 식당에서 담배 1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담배가 국산 가운데 가장 비싼 종류였던 것은 애교 섞인 ‘상인정신’이었다.

인기최고 대학가 자판기

대학가에서 자판기의 인기는 유별나다. 특히 경기가 불황이면 일수록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저렴한 가격의 자판기 내용물의 인기도 인기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직종으로서의 인기까지 최고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는 ‘교내 알바’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주로 취업정보센터, 학생과, 대학생 활동동조합, 종합봉사실에서 알선해 주고 있다. 대부분 근로장학생제도로 운용돼 급여가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생활이 어렵고 학비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 전 학기 평균성적이 2.5~3.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내 아르바이트로는 대개 자판기 관리, 식당, 자율방법, 주차관리, 복사실, 도서관, 학과실 근무 등이 있다. 이 중 인기가 높은 자판기 관리의 학교당 평균 20명 정도며 식당 아르바이트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 3, 4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최근 알려진 지원 경쟁률은 평균 6대1, 15대1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일의 정도에 따라 남녀 학생 간 구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육체적인 노동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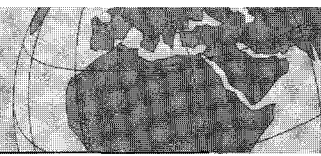
아 대개는 남학생들이 주를 이룬다. 근무의 시간대나 일의 경중에 따라 다소간 임금 격차도 난다.

1년 넘게 자판기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방성식 씨(26)는 “매월 20만원으로 자판기 청소나 재료 공급을 하고 있다”며 “보수는 적지만 시간이 적게 들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자판기 성수기가 시험기간이어서 공부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는 대학가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경제사정이 가뜩이나 어려워진 대학생들은 미팅도 자판기 커피로 대신할 정도로 “짠돌이 정신”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고 한다.

“사랑이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알아?”라는 CF 카피처럼, 연애와 경제사정의 상관관계는 대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학생들 사이에도 일명 ‘짠 돌이 커플’이 등장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돼 버린 ‘도서관 커플’은 캠퍼스에서 이제 특별한 모습이 아니다. 한술 더 떠 값싼 구내식당마저 이용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 함께 먹는 ‘짠돌이 커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데이트 방식은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회원 쉼터’(TTL존, NAZIT 등)를 찾아 무료로 인터넷을 하며 뮤직비디오를 보고 음료 등을 즐기거나, 대형 쇼핑몰에서 ‘윈도쇼핑’을 하는 것. 가끔 바람을 쐬고 싶을 때는 특정 신용카드로 무료입장되는 놀이동산에 가서 유료 놀이기구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내부시설만 이용하면서 놀기도 한다.

송모(S대3년)양은 “남자친구랑 품위 있게(?) 데이트 한지가 너무 오래 됐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금전적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며 ‘짠돌이 연애’를 예찬했다.



‘잔돌이 미팅’도 생겨났다. 대학 신입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미팅’은 과거 분위기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 미팅 방법에는 ‘지출’이 크기 마련. 최근에는 학교 학생회관(쉼터)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캠퍼스 구경을 하는 미팅이 생겨났다.

‘잔돌이’ 방식이 대학가에 아직 널리 퍼진 것은 아니지만, 유흥과 사치에 젖은 대학가에 건강한 유행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심부름이 만든 갈등 치유를 위한 OCS 기증 화제

기간제 여교사의 ‘차(茶) 시중’ 문제가 발단이 돼 교장 자살 사태로 이어진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에 한 시민이 소형 커피 자동판매기를 기증해 화제가 되었다. 익명의 한 한 시민은 택배로 OCS 한 대를 보내면서 차심부름이 이렇게 커다란 문제로 확산된 데 놀랐고 이 자판기가 관계자들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학교 관계자에게 부탁했단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 아니 할 수 없다. OCS 한대의 가격에 비하면 그 기증의 효과는 엄청 크다. 자판기가 이제 차심부름으로 인한 갈등치유에 까지 큰 역할을 할 수 있



기간제 여교사의 차(茶) 시중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한 직원이 50대 직장인한테서 기증받은 커피 자판기를 교무실에 설치하고 있다.

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차 한잔 마시는 거에 있어선 자판기가 뒤끝이 없다니까요....

자판기, 연극 속에 주 소재로 등장

“잘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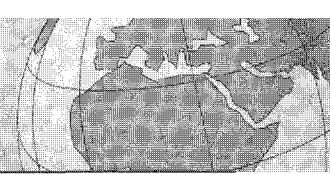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참여한 대립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기란 쉽지 않다.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듯 좀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그 건 나뭇가지가 부러질지 모른다는 부지불식간의 위협이자, 동시에 상대방 내 것을 노리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다. 고리의 악순환. 노사관계가 그렇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공개적으로 조망한 작품이 국내 최초로 무대 위에 올랐다. 경영자와 노동자, 양측의 입장을 비교해가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기획단체로부터 제작까지 참여한 이례적인 무대.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작가들이 대기업과 공장, 명동성당 앞의 농성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인터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첫 발을 내딛은 작품이다.

훈계조의 고무한 연극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부딪치는 노사관계를 희화적으로 엮었다. 연극 속 연극 즉, 노사 문제를 다룬 연극을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관객과 함께 해결해 가는 참여 방식을 취했다.

이 연극은 한 회사에서 자판기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견 밸린트 전원주, 서학씨와 원로 연극배우 박용씨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한편 이 연극은 강경식(67)전 부총리가 연극제작자로 나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가 폭로되는데 있어서는 커피자판기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지난 겨울호에도 언급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그 최규선의 비리를 폭로했던 천호영(38)씨에게 최근 유죄가 판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6 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6월 29일 최규선 전 미래도시환경 대표한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최씨의 전 비서이자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제보자 천호영(38)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했다. 또 천씨의 동생호림(3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사영화관 매점을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중 같은 빌딩 안 커피숍을 운영하던 최씨와 커피자판기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며 최씨에게 자신의 매점을 6억원에 인수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천씨는 그동안 “매점을 운영하면서 최씨에게 적정 가격에 인수하라고 했던 것일 뿐이지 폭로를 미끼로 인수를 강요하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판기 투자를 미끼로 한 조직적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석복권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30대가 붙잡혔다.

부산 연산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즉석복권 자판기 사업을 미끼로 수백명의 투자자들을 모집, 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수배를 받아오던 정모(35·주거

부정)씨를 검거, 조사를 벌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즉석복권 자판기 사업에 참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투자자 327명을 모집, 2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구좌 당 330만원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투자자들이 일정 구좌 이상을 확보하면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접 즉석복권 자판기 44대를 구입, 투자자들에 보여주면서 현혹시켰다.

정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고 타인 명의로 등록돼 경찰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왔으며 매달 번호를 바꿔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 신문광고가 많았던 성인방송수신 자판기 사업에 있어서도 사기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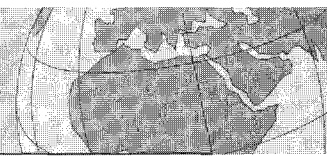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4월 방송수신용 자판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광고로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33살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일간지에 숙박업소 등에 일본기술과 제휴한 방송수신용 자판기를 설치하면 최소 월 150여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권모씨에게 투자금 천만원을 받는 등 40여명에게서 7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美 청소년 비만 문제 자판기 정면 대립

미국에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의 비만이 급증,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 스낵 등의 판매를 규제하려는 동향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6세에서 19세 이하의 연령층 가운데 비만인구가 7명당 1명꼴이다. 비만(Obesity)을



빛대어 'O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1990~2000년 자료를 보면 이들 연령층의 15%, 약 900만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년 전인 1980년의 자료와 비교하면 뚱뚱한 어린이와 10대의 비율은 각각 2배와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비만을 걱정스레 보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압도적 다수가 자신들의 젊은 시절보다 비만 현상이 확대됐고 건강상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27%는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을 비만 확산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고 운동량 부족을 지적한 의견도 22%에 달했다.

미국 언론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녀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에서는 냉장고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꺼내 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학교에 가면 자판기에서 언제든지 청량음료와 사탕, 스낵과자와 같은 것을 사먹을 수 있으며, 교내 식당의 메뉴도 패스트푸드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43%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 비율이 74%와 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토미 톰슨 보건장관은 지난 5월 13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스트푸드업체와 음식점들이 비만 억제를 위해 메뉴를 바꿔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하기 했다.

톰슨 장관은 "우리는 비만 관련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연간 1천170억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30

만명이 이런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규모의 햄버거 체인업체인 맥도널드가 샐러드를 메뉴에 추가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물론 맥도널드의 이런 조치는 비만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학교 자동판매기에서 사탕·도넛·스낵·청량음료 등 비만 식품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CBS와 CNN방송이 지난 지난 6월 2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당국의 관리는 전날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교내 자판기 판매 지침을 발표하고 대신 자판기에서 파는 식음료는 물·이온음료·과일주스·저지방 감자칩 등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와 함께 뉴욕시의 학교들에서 만드는 하루 80만개의 점심식사 메뉴도 비프 라비올리·마카로니 대신 타코·치킨 너겟 같은 저지방 음식으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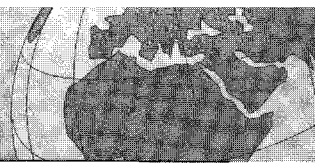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욕 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의 20%, 6학년의 21%가 비만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日 코카콜라자판기, 고객과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제 시행

"늦게까지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공짜입니다."

단골가게 직원의 말이 아니다. 일본 코카콜라가 새로운 가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자판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선심성 행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의 고정고객이 전체 자판기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이 때문에 모든 고객이 공짜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자판기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고객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물건을 살 때 공짜 혜택이 돌아온다.

핵심은 고정가격 파괴. 소비자가 더 사도록 가격을 바꿔 가며 '팔릴 만한 가격에 판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전역에 98만대의 자판기를 설치한 이상 추가 설치로는 전체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코카콜라는 결국 매출 증가가 단골 고객층 확대와 충성도 강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켄에 몇엔'이란 기존의 정가 개념을 바꿔 버렸다. 대표적인 방식이 고객 식별이 가능한 차세대 자판기를 이용해 고객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 밖에도 자판기는 외부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찬 음료 10% 가격인하'란 문구와 함께 자동으로 가격을 낮춘다.

상황에 따라 가격을 바꿔가며 고객을 붙잡는다는 전략이다.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산자가 정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이기만 하던 '정가'로서 가격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넨 '전자동 강아지목욕기.'

자판기식 목욕통에 강아지를 넣고 동전을 투입하면 '개 목욕'이 시작된다. 온수와 비눗물이 번갈아 나오면서 목욕과 마사지를 하고 난 뒤 따뜻한 바람이 강아지 몸통의 물기를 말려주면 목욕 완료. 이용료는 소형견 17달러(한화 약 20400 원), 대형견 34달러(한화 약 40800원)이다.

강아지 자동목욕기를 운영하는 세탁소 주인 타카요시 나케 씨는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하다 생각해 냈다"며 "직접 개를 씻겨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반응이 제법 좋다"고 전한다. 현재 자판기 목욕기를 이용하는 개 손님은 일일 10마리 안팎.

애견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애견 선진국 일본에서 개를 기계 속에 집어넣고 '세탁'하는 식의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다소 뜻밖이다.

쫓쫓, 줌 있으면 아들도 목욕시키는 자판기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세탁! 개는 목욕!”

전자동강아지 목욕 자판기 등장

‘개 세탁소?’

애견 서비스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일본에는 빨래방을 찾은 손님들이 세탁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 눈길을 끈다.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에 있는 한 빨래방에 모습을 드러

